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2 “우리도 함께 뛰다”

광주 북구청 마라톤 동호회

구정 홍보·직원 친목 도모

회원·가족 등 119명 참가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 건설을 위한 희망을 안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를 기다리고 있는 광주 북구청 마라톤 동호회(회장 정양조 건국동장)의 설립 슬로건이다.

북구 마라톤 동호회는 지난 2005년 3월 22일 직원들의 친목과 구정 홍보를 위해 20여 명의 회원으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회원수가 70명에 이른다.

슬로건에 맞게 각종 전국 마라톤 대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광주에 있는 민·관·직장 및 지역 마라톤 동호회와 합동 훈련을 갖는 등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다.

북구청 마라톤 동호회는 이번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에 적극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송광은 북구청장을 포함한 이육현 부구청장 등 동호회원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과 직원의 가족 등 119명이 참가한다.

이번 3·1절 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를 뛰

“더불어 잘사는 북구’ 꿈 안고 뛩니다”



25일 광주 북구 용봉동 북구청 광장에서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직원들이 선전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는 이철행(54·행정 7급)씨는 “내 건강과 회원 모두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직장 생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꾸준한 훈련으로 회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좋은 성적을 바탕으로 북구 마라톤 동호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주 주중 두 차례(화·토요일) 전 회원이 한 자리에 모여 정기 훈련을 하고 있는 북구청 마라톤 동호회 핵심멤버 중에는 41.195km 풀코스를 완주한 회원이 10여명에 달한다.

정양조 북구 마라톤 동호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모든 참가자들이 건강을 챙기고 나아가 광주시민들이 장기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 환히 웃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현대삼호중공업 마라톤 동호회

12년만에 온라인 회원 5천명

최근 2년 6개 대회 연속 입상

“직원 건강은 물론, 즐거움도 함께하니 이보다 좋은 운동이 있겠습니까?”

현대삼호중공업마라톤동호회가 제49회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마라톤으로 다진 건강과 직원화합으로 세계 조선산업을 이끌고 있는 현대삼호중공업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하겠다는 각오다.

지난 2002년 6월 윤여상 전 회장을 비롯, 7명의 작은 회원으로 창립한 현대삼호중공업마라톤동호회는 12년 만에 오프라인 회원 51명, 온라인 500명 규모의 큰 동호회로 성장했다.

‘함께 달리면 기쁨 두배! 감동은 세배!! 우리 함께 달려요!!!’ 라는 슬로건을 걸고, 하루하루 열심히 달리며 체력단련은 물론, 기록보다 회원 간 건강과 즐거움을 나누는 마라톤 동호회인 만큼, 주로 30대에서 50대 초반의 활기찬 회원으로 구성됐다.

역사가 길어지면서 실력과 회원도 등장했다. 현재 이 동호회는 8명의 ‘Sub3’(풀코스인 42.195km를 2시간59분59초 이내에 완주하는 것)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회원들도 대부분 평균 풀코스 3시간 초반의 기록을 달성했다.

박재규 동호회 회장은 “매년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에서 동호회원들이 한해 결의를 다진다”며 “봄을 알리는 전국 규모의 3·1절 마라톤 대회가 실력과 회원들에게는 한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경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영진 동호회 총무는 “이번 대회에서도

“건강에 재미... 이보다 좋을 수 없다”



12년의 역사를 가진 현대삼호중공업마라톤 동호회(회장 박재규)는 지난 2년간 풀·하프 단체대항전 6개 대회 연속 입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회원과 가족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중호회 회원들이 본인은 물론,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기 바란다”며 “직장 동호회인 만큼, 전 회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올해 회사가 이루고자 하는 매출 및 수익목표 달성을 위해 힘껏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수원마라톤클럽

달리기 통한 회원간 친목 도모

회원 31명 풀·하프·10km 도전

‘수마의 끼, 수마의 꿈, 수마의 땀, 달리고 달리고 달려라!’

매주 일요일 아침, 광주 수원지구 풍영정전을 가로지르며, 마음껏 에너지를 뽐내려는 사람들이 있다. 달리는 게 좋아, 자연이 좋아 모인 광주수원마라톤클럽(회장 최철호) 회원들이다.

수원마라톤클럽은 지난 2010년 10월 신도심인 수원지구를 중심으로 순수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이 창단했다. 달리기를 통해 회원 상호간 건강과 친목을 도모하고, 전국의 마라톤클럽과 교류하며 마라톤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또 지역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마라톤 감성회도 연다.

170여명의 회원들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일요일 오전 7시 수원중앙공원에 모여 정기 훈련을 하고 있다. 이들은 아등산악악러닝, 한재골 언덕 훈련, 경기장 스피드 훈련, 승촌보 왕복길주 등 특별훈련도 실시한다.

경기력도 크게 향상됐다. 특히 총무를 맡고 있는 정정미 씨의 질주가 눈부시다. 지난

“풍영정천 가르며 땀은 실력 기대하세요”



광주수원마라톤클럽 회원들이 3·1절 마라톤 완주를 다짐하고 있다.

해 4월 고흥우주마라톤에 출전해 하프 4위를 기록한 정 총무는 9월 금성산술마라톤 여자 3위, 제주국제마라톤과 해남평달마라톤 2위에 이어 11월 남원춘향골마라톤 30대 여자하프에서 정상에 올랐다.

회원 대부분이 수원지구에서 생활하는 이웃사촌이다. 그러다보니 여는 클럽보다 정이 끈끈하다. 신성 클럽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클럽들이 부러워하는 수원클럽만의 장점이다.

수원마라톤클럽은 창단 이래 줄곧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출전했다. 올해도 회원 31명이 풀코스와 하프, 10km를 뛩다. 최철호 회장은 “북에서 남으로 수원지구

중심부를 따라 흐르는 영산강 지류인 풍영정천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운동을 시작한 회원들이 대부분”이라며 “최근에는 3·1절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빈개모임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가다듬으며 훈련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여울 기자 KIA 전훈련캠프 오키나와를 가다



강한울

박준태

포지션 전쟁터 ‘무서운 아이들’

KIA 타이거즈의 ‘무서운 아이들’이 팀을 바꾸고 있다.

막바지로 향하는 KIA 오키나와 캠프에는 포지션 전쟁이 한창이다. 치열한 경쟁의 중심에는 내야수 강한울(23)·외야수 박준태(23)·투수 김지훈(22) 등 무서운 신인들이 있다.

빠른 발로 우선 어필했던 강한울은 타고난 야구 센스까지 과시하며 선배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25일 니혼햄과의 경기에서는 4타수 3안타 1타점 2득점을 올렸다. 도루도 기록했다.

강한울은 실점을 선수라는 평가다. 타석에서의 집중력이 좋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비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대학 시절 2루수 포지션을 소화했던 강한울은 이번 캠프에서는 유격수로 키워지고 있다.

“공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바운드 처리하는 게 아직 어색하다”고 말은 하지만 큰 실수 없이 유격수 자리에 적응해가고 있다. 강한 어깨도 유격수 강한울에게 가산점이 된다.

강한울의 약진 속 어깨 통증으로 캠프 움직임이 더디면서 김선빈에게는 비상이 걸렸다.

외야수 박준태도 살은 쏙 빠졌지만 캠프가 재미있다. 박준태는 2군에서 캠프를 시작했지만 중도에 오키나와 캠프에 합류한 경우다. 출발은 미약했

지만 현재는 창대하다.

오키나와에 입국하자마자 중도에 자체 청백전에 투입된 박준태는 3루타를 때려내며 이름을 알렸다.

스윙이 딱딱하다는 단점은 훈련으로 만회해 가고 있다. 실제 타석에서의 타이밍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강한 어깨가 박준태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

한화와의 연습경기에서 빠른 발로 3루타를 만들었던 박준태는 수비에서는 멋진 홈 송구도 보여줬다. 전체적으로

강한울, 한화 연습경기 멀티히트 수비도 합격

박준태, 강한 어깨 장타력 갖춘 유망 외야수

김지훈, 140km 대 커브·싱커 매서운 사이드암

로 어깨가 약한 KIA 외야에 돋보이는 보살이었다. 야구에 대한 열정도 빼어놓을 수 없다. 마무리 캠프기간 조용히 전력분석팀 문을 두드린 유일한 선수 가 바로 박준태다.

마운드에서는 사이드암 김지훈이 선동열 감독의 눈길을 끌고 있다.

신승현이 이대형의 FA 보상 선수로 LG로 이적했고, 베테랑 유동훈은 무릎 부상으로 캠프 중도에 귀국하는 등 짐수함들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김지훈의 도약은 더욱 눈에 띈다.

김지훈 역시 캠프 중도에 합류한 선수지만 성장세가 가파르다. 140km대 공을 뿌리는 김지훈은 목직함을 큰 무기로 가지고 있다. 두툼한 배장을 바탕으로 자신감 있는 승부와 매서운 볼끝, 커브와 싱커 등 변화구의 움직임으로 선배들을 압도하고 있다.

선배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무서운 신인들. 이들이 KIA 캠프를 움직이고 있다. /wool@kwangju.co.kr



김지훈